

2024 Vol. 25

ISSUE & FOCUS

전국연구개발지원단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Contents

04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커피 인식 현황과
커피 산업내 탄소저감 대응 방안

15

02

지역과학기술 COLUMN

창의와 혁신이 중요시되는 융합의 시대,
필수 불가결한 전략 : 국제협력

17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2.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3.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42

04

R&D 성공사례

전북특별자치도 R&D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우수사례

47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커피 인식 현황과 커피 산업내 탄소저감 대응 방안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커피 인식 현황과 커피 산업내 탄소저감 대응 방안

 강원연구개발지원단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여 1년에 커피 405잔으로 전 세계 2배 소비량¹⁾으로 나타남

- 특히, 홈카페 트렌드 및 소비자의 커피 취향의 다양화, 고급화로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성장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2년 음료류 품목별 국내 판매액 중 전체 음료 시장에서 커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8%로 탄산음료 25.5%보다 높은 수준임²⁾

* 커피류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기준

■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는 바쁜 기업문화와 높은 접근성, 다양한 제품 출시 등의 영향임³⁾

- 빠른 속도와 높은 업무 집중을 요구하는 한국 특유의 업무문화로 피로 해소와 집중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커피 섭취 증가
- 주요 상권이 아니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카페 등 소비 환경이 잘 구축되어 짐
- 인스턴트·조제 커피 시장은 축소세가 뚜렷한 반면 원두커피 시장은 성장세가 분명한 모습으로 2020년 상반기 기준 원두커피 판매액은 294억 원에서 351억 원으로 20%가량 성장 함

■ 다만, 커피 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커피 품질이나 시설 등의 서비스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없고, 커피를 소비하고 남은 커피박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 버려짐에 따라 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함

1) 노태영, 푸드투데이, 2024.1.3

2)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커피류, 2023년 12월 2주

3) 구은모, 아시아경제, 2023.12.25

2. 커피산업 환경

■ 국제커피협회(ICO,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에 따르면 2021/22년 세계 커피 생산량은 약 1억 6,850만 백(bag)으로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임⁴⁾

<표1> 세계 커피 시장 규모 요약

단위 : 1bag / 60kg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생산량	167,569	169,887	168,390	170,876	168,485	171,268
소비량	165,637	170,876	167,593	168,569	175,605	178,534

출처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23)

■ 2022년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3조 1,717억 원으로, 홈 카페 트렌드 및 소비자의 커피 취향의 다양화·고급화로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성장⁵⁾

- 코로나 이후 홈카페 유행이 지속되고 카페 커피 가격이 인상되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볶은 커피시장은 2018년 이후 연평균 17.4%의 성장률을 기록
- 반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설탕이나 착향료가 들어간 조제커피(믹스커피)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 조제커피(믹스커피)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16.6% 감소(식품의약품안전처)
- 저가 전략을 내세운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장, 카페 등 커피전문점 선호 경향 등이 조제커피 시장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MZ세대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프리미엄 인스턴트커피’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MZ세대들의 세분화 된 취향과 이색적인 맛, 건강,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운 신제품 출시로 조제커피 시장 규모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22년 전년대비 10.8% 증가함

<그림 1> 커피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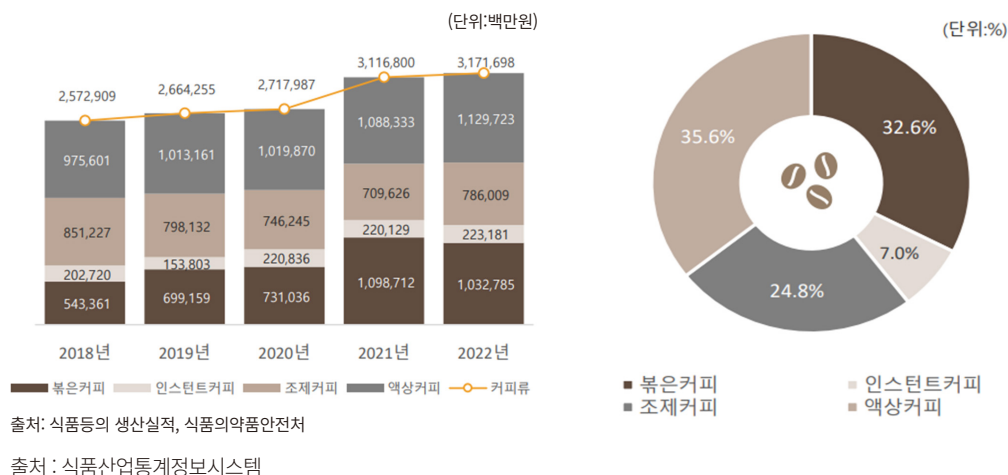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4)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2023)

5)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커피류, 2023년 12월 2주

<그림 2> 국내 커피류 시장규모 및 커피류 시장비중
시장규모(2018~2022)
시장비중(2022)



■ 2023년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해 커피 및 음료점업 점포수는 전년 말보다 17.4% 증가한 9만 9천 여개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함

- 커피·음료 점포는 2019년 말 5만 9천 개, 2020년 말 7만 개, 2021년 말 8만 4천 개로 늘었고, 2022년 말 10만 개에 근접함
- 2022년 말 점포 수는 4년 전인 2018년 말에 비해 102.1%(5만 개) 늘어난 것으로, 단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여서 커피·음료점은 다른 음식점들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보임

<표2> 업종별 음식점 추이

(단위: 개)

업종/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한식음식점업	270,400	291,130	313,349	337,571	362,168
중국음식점업	17,900	19,539	21,069	23,297	25,721
일식음식점업	11,195	12,788	14,546	17,150	19,750
서양식음식점업	21,543	24,643	28,595	33,696	38,970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1,168	1,538	1,681	1,929	2,525
제과점업	733	733	733	733	733
패스트푸드	10,296	10,821	11,394	12,144	12,676
치킨	61,339	65,835	71,232	76,175	80,522
분식	30,180	32,844	35,682	39,155	41,812
주점업	40,597	42,343	43,862	45,127	46,789
커피 및 음료점업	48,935	58,582	69,602	84,240	98,886
기타	96,929	118,155	141,163	168,651	199,517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2023. 1.)

- 우리나라의 커피산업은 재배 기술과 기후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2~3차 산업과 연계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커피 원두 판매, 커피나무 잎을 활용한 차(茶) 상품 개발, 커피 생두를 볶은 후에 남은 찌꺼기(부산물)를 활용한 각종 화장품 개발 및 커피농장 등에서 커피 로스팅(roasting) 체험 및 시음행사, 지역 커피 축제*, 바리스타 교육, 박물관 운영 등 2~3차 산업과 연계시키고 있는 추세임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대표적인 커피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축제를 진행 중

<표3> 우리나라 커피 재배의 산업발전 형태별 활용 현황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 시음용 생두 생산 - 종자용 씨앗 판매 - 관상 및 자가 재배용 묘목 판매	- 커피 원두 판매 - 커피 잎 차(茶) 개발 - 커피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 원두 찌꺼기 가공품 개발	- 커피 체험 (로스팅, 시음, 모종 키우기 등) - 지역별 커피축제 - 바리스타 교육 - 박물관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출처 : 관세청 보도 자료(2023. 1.)

3. 커피에 대한 소비자 인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빅데이터거래소 카텍스(KADX, Korea Agrofood Data eXchange)와 유통시장 데이터 플랫폼 기업 마켓 링크가 국내 커피 시장 분석 결과⁶⁾

- 커피 제품 판매는 1분기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증가하고 4분기에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 국내 소비자들이 더운 계절에 시원하게 마시는 RTD 커피 등 커피음료를 선호
- 소비자 패널조사 결과 가정에서는 주당 평균 6.5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인스턴트커피, 캡슐, 캔, 핸드드립 순임
- 성장세를 보이는 프랜차이즈 카페 시장은 상위 톱5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59.3%로, 사이렌오더 등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스타벅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층을 공고하게 다진 메가커피, 컴포즈커피의 재구매율과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특성별로는 20~30대가 카페 매출의 50%를 차지했고, 스타벅스는 30대 남녀, 메가커피는 20대 남성의 이용률이 높은 것이 특징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도자료, 2023. 11. 21

■ 이와 관련하여 강원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커피에 대한 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2,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중 유효한 설문지 1,905개를 통해 커피 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를 살펴 보았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으로는 30~40대가 절반을 넘었고, 학력은 대학재학 또는 졸업, 직장인의 비율이 높고 월소득은 100~300만원 미만이 절반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커피 마시는 것과 관련하여 서비스 및 시설, 커피품질, 기분전환동기 순으로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

* 사회적동기, 습관적 동기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특히, 커피숍의 재방문 및 구매의도와 관련하여 서비스 및 시설, 커피품질, 기분전환동기, 습관적동기 순으로 재방문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

* 사회적 동기는 재방문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재방문 및 구매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4> 커피 품질 및 만족도, 재구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N=1905)	남성	422	22.2
	여성	1,483	77.8
연령 (N=1905)	20대	385	20.2
	30대	585	30.7
	40대	425	22.3
	50대	355	18.6
	60대 이상	155	8.1
지역 (N=1905)	강릉지역	447	23.5
	강릉외 지역	1,458	76.5
학력 (N=1905)	고졸	176	9.2
	대학 재학 또는 졸업	1,365	71.7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290	15.2
	기타	74	3.9
직업 (N=1905)	학생	162	8.5
	직장인	1,034	54.3
	주부	303	15.9
	전문직	287	15.1
	무직	119	6.2
월소득 (N=1905)	100만원 미만	66	3.5
	100~300만원 미만	1,009	53.0
	300~500만원 미만	582	30.6
	500만원 이상	248	13.0

출처 :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자체자료

4. 탄소 저감을 위한 커피박 현황

■ 기후 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또한 더욱 분명해지고 이 맥락에서 탄소중립(Net Zero 또는 Carbon Neutrality) 개념이 등장하였음⁷⁾

-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확대

■ 특히, 커피의 경우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아메리카노 한잔을 만들기 위해 약 15g의 커피 원가 사용되는데 99.8%의 원두는 커피박이 되어 버려짐⁸⁾

- 커피박은 현재 폐기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지만, 재활용의 가치가 높은 자원임
- 커피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는데 커피박을 땅에 매립 할 경우, 온실가스인 메탄(CH₄)이 배출되는데, 바로 메탄(CH₄)의 지구온난화 지수가 28~34임
- 따라서 버려지는 커피박은 이산화탄소보다 28~34배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커피박)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되나 커피박이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⁹⁾

*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

-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음
- 또한, 커피찌박이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음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라 ①사료,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흑연 관련제품의 원료로 사용, ②사료·비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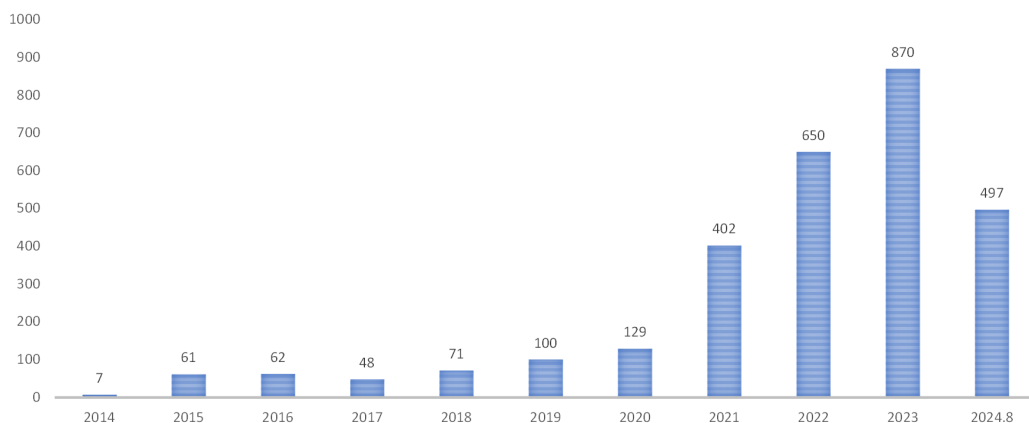
■ 커피박에 대한 키워드 트렌드를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2014년부터 2024.8월까지 검색한 결과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7) 윤순진,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과 과제

8) 커피박재자원화 프로젝트(<http://coffeebak.kr/explanation/>)

9) 환경부 보도자료, 2022.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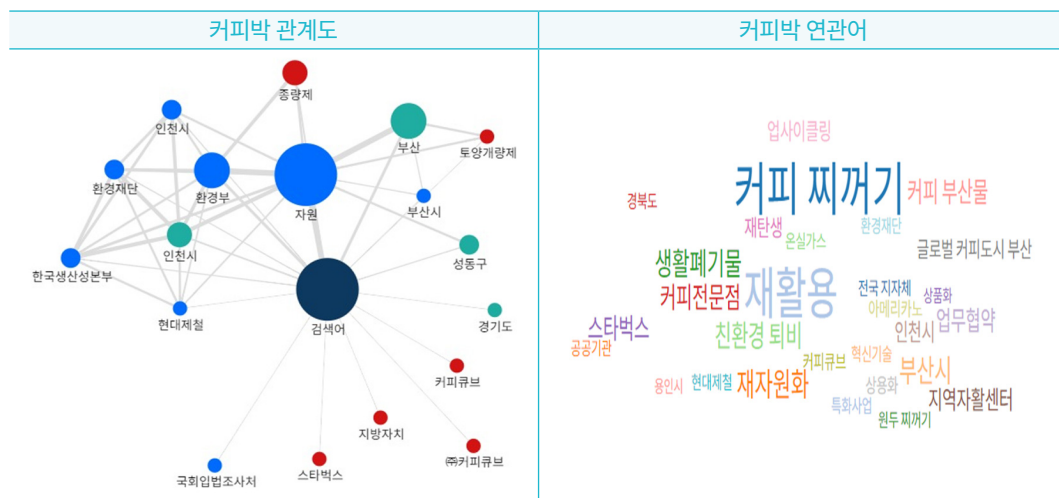
<그림 3> 커피박 키워드 트렌드(2014~2024.8)



출처:빅카인즈

- 커피박에 대해 관계도 분석을 보면 자원에 대해 가장 큰 관계를 보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커피박에 대한 연관어도 재활용, 재자원화와 온실가스 등 탄소저감 및 환경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4> 커피박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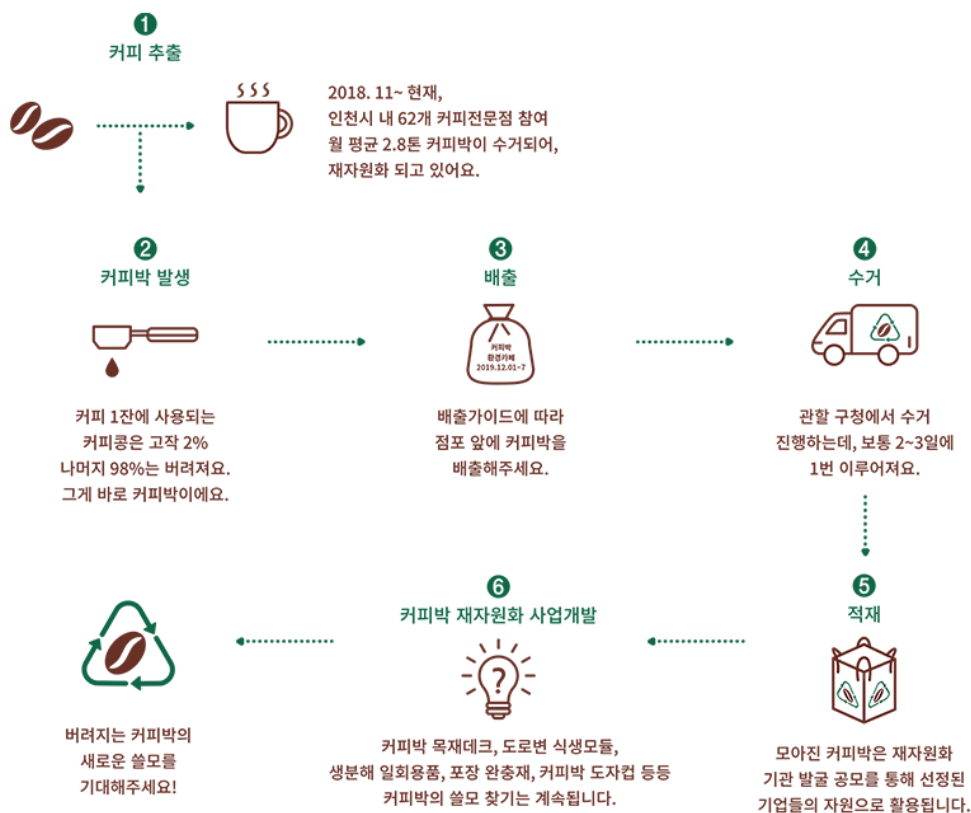


출처:빅카인즈

■ 커피박의 재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화가 이루어지면 자원순환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 할 수 있음

- '21년 환경부 옴브즈만 제도: 커피박 활용기준 규제 개혁 요청
- '21년 국무총리실 혁신사례 선정: 커피박 재활용 범위 확대
- '22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순환자원으로 인정(3월)
* 기존 커피비료/원료 이외에 커피박을 목재성형제품으로 활용 가능
- '23년 국조실 경제 규제혁신TF: 커피박 재활용 유형 확대 추진

<그림 5> 커피박 재자원화 과정



출처 :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홈페이지

■ 현재 커피박을 활용해 만든 스타벅스 쟁반이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인증을 받았음

- 순환자원사용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순환자원이 제품 원료의 10% 이상 차지하고 폐기물이면서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야 함

<그림 6> 커피박 순환자원 제품



<그림 7> 커피박 처리흐름도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2022.3.14

5. 결론

■ 우리나라 커피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커피박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커피의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커피 전문점의 확대, 홈카페의 증가로 커피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특히, 가정에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마실 경우 대부분의 커피박은 폐기물로 버려지는 상황임
- 이를 수거하는 커피박 수거 시스템도 있지만, 특정 지역만 해당되고 자발적인 수거가 아닐 경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소비자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기, 커피 품질, 커피 서비스 및 시설은 만족도와 재방문 및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는 결국 재방문 및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커피의 지속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나 대형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커피박의 자원 재활용으로 연결 시킬 필요가 있음

■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4년 신흥기술로 축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대체 가축사료 기술¹⁰⁾ 제시 하였는데,

- 대두, 옥수수, 밀 등 환경적 영향이 큰 작물 대신 곤충, 해조류,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공급되는 사료로 대체하여 환경 영향력 최소화하는데 커피박의 사용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커피산업의 지속적 성장은 커피박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순환자원으로 인정 가능한 요건을 더 완화하여 커피박을 다양한 형태의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특히,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과 지역 차원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영이 필요함

■ 커피박이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나 한계성이 있으며 시장도 걸음마 단계인데 이는 불필요한 규제 때문임

- 탄소저감 정책을 위해서는 커피박의 재자원화는 반드시 필요함

10) 2024 신흥기술 Top 10, NRF R&D BRIFF 2024-30호, 연구재단



02

지역과학기술 칼럼 COLUMN

창의와 혁신이 중요시되는 융합의 시대,
필수 불가결한 전략 : 국제협력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창의와 혁신이 중요시되는 융합의 시대, 필수 불가결한 전략 : 국제협력

충북연구개발지원단 현대인 단장

세계 경제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넘어 창의와 혁신이 중요시되는 융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적 복잡성은 증가하고 이를 관리하고 통합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의 단독적 연구 역량에만 의존해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에 기술력이 있는 다른 국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외부협력을 통하여 내부경쟁력을 강화하는 개방형 혁신은 필수 불가결한 전략이 되었다.

특히, 국제협력은 다양한 전문 지식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전략, 해외 인재유치,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국제협력 관련법들이 제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기술 정책 분야별 구체적인 국제협력 지원방안을 마련해 과거 단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중 장기적인 글로벌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현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도(충북과학기술혁신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디지털 기업과 인재 등의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도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선호할 만한 매력적인 입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에 준하는 디지털 신산업 입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충북도는 선진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핀란드 에스포와 헬싱키를 방문해 디지털 및 양자기술 등 딥테크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에스포시는 글로벌 기업의 본사(Nokia, IQM)와 대학(Aalto Univ.) 및 핀란드 국립기술연구센터(VTT) 등 연구기관이 밀집하여 활발한 산학협력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한 판교와 유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충북 오창을 제2의 판교로” 조성하는데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 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확산해 나가는 데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을 기대해본다.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 2.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 3.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2024년 광역(강원-수도권) 연구개발지원단 제1차 공동 워크숍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2024년 선도연지단으로 선정되어 광역(강원-수도권) 연구개발지원단 제1차 공동 워크숍을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양평군 블루비스타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강원선도연구개발지원단(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기·서울·인천 연구개발지원단(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서울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단장 포함 실무자,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담당자 등 29명이 참석하였다.

강원-수도권 광역협의체는 수도권-강원 연구개발지원단간 광역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국가 12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광역내 전·후방 산업 가치사슬 체계를 제안하며, 지역을 초월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역내 지역간 과학기술 협력 체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워크숍 주요 추진 내용으로 첫 번째 2024년 광역연계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소개, 광역연계 협의체 운영 계획, 지역간 공통 과학기술 분야 도출 및 신규사업 발굴 해외 벤치마킹 계획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 광역연계 R&D 조사분석 통합 가이드(안)를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 R&D 조사·분석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4개 연지단의 이슈 사항을 KISTEP과 같이 협의하였다. 지역별 R&D 대상사업에 대한 분류 방식의 통일(안)을 마련하여 지역 R&D 조사·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세 번째로 수도권-강원 광역 연계 협의체 세부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하였다. 바이오산업 공동 클러스터 육성 방안과 바이오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공동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바이오산업 분야 공통 조사 및 분석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과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한 지역별 정책 제안도 논의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바이오 분야 현황을 설명하고 공동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간 바이오 분야 산업 연계와 정책 분석, 기존 바이오 분야 R&D 조사 현황 등을 발표하고 공동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기도 R&D 운영전략 및 로드맵 수립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R&D 운영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경기도 R&D 정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팀장을 비롯해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단장, 박정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 등 총 14명의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논의하며, 경기도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국가 R&D 예산 유치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경기도 김진욱 팀장은 “최근 경기도의 R&D 정책은 확장되고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경기도 R&D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향후 실효성 있는 R&D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지역 R&D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경기도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산업연구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소재부품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특화 소재부품산업 기본계획 수립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산업 내에서는 공급망 안정화와 내재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산업 관련 부품 장비에 대해 경제성을 고려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공급망 3050 전략’과 ‘공급망 기본법’을 참조해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연구 착수는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남도, '경남 산업 디지털전환 전략 발표회'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상남도는 지난 19일 오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의 주요과제 중 도내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경남 산업 디지털전환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산업 디지털전환은 산업 전 과정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5G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공정혁신·제품지능화·서비스 고도화·신산업 창출 등의 유형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도 류명현 산업국장을 포함한 산업정책과장·주력 산업별 파트장들과 경남테크노파크 본부장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방안과 산업별 디지털전환 전략을 모색했다.

먼저, 경남도의 핵심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기계산업 등 분야별 도내 제조기업 디지털전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지원방향을 발표하고 주력산업 전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은 지난 50년간 창원국가산단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을 견인해 왔지만, 현재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생산성 저하, 청년들의 제조업 취업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메타버스(디지털트윈) 등의 기술을 융합한 제조공정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경남테크노파크와 손잡고, 도내 제조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공정별로 면밀한 디지털전환 현황을 파악해 전략목표와 우선순위·국책사업 기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류명현 도 산업국장은 “앞으로 경남도 주력산업별로 디지털 전환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수준·기업수요·정부정책·시급성·파급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전략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도내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720010006175>

경남TP,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원사업 논의

경남연구개발지원단



행사는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경남TP는 2023년 5월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해 분기별로 FGI협의체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필요 정부정책 등을 논의해 지역경제 전반의 경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4년 2분기 모니터링 기준 경상남도 밀집지역은 총 177개 지역으로, 밀집지역 중 131개 지역이 양호, 46개 지역이 주의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밀집지역 유형은 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로 분류된다.

협의회에서는 ▲밀양 나노산업 및 밀집지역 현황, 애로사항, 해결방안 및 필요 정부 정책 공유 ▲관련 산업 현안 및 건의 사항, 의견수렴 ▲밀집지역 내 입주기업의 기업지원 현황 및 적재적소의 기업지원방안 관련 논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지원사업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이번 협의체는 나노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경남TP는 앞으로도 입주기업들과 지역 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17>

제2차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시는 지난 6월 제2차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위원장: 이상감 문화경제부시장)를 개최하여 광주과학기술혁신계획과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위원장을 포함한 1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차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는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이하, 광주연지단)주도로 지역 R&D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24~’28)의 지역 중점과학기술 분야와 유망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핵심 심의 안건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은 기존 법정계획인 과학기술진흥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우리 지역은 2개의 중점과학기술분야 (AI+X 메디헬스케어, 첨단모빌리티)와 유망과학기술분야 (광융합반도체, 양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위원회 본안 의결에 따라 향후 5년 간 지역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신규과제 추진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계획의 최종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과제로서 혁신계획에 수록될 중점신규과제인 첨단 모빌리티 과제(제안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기획 역시 순조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연지단은 이번 제2차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시작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부합하는 지역 차원의 혁신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광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연구개발지원단

* 세종시 양자산업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표
(출처 : 세종시, 세종의소리(<http://www.sjsori.com>))

보도자료 세종시 - 보도자료

제1차 울산 과학기술혁신협의회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7월 26일(금) 울산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 센터에서 제1차 울산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개최된 협의회는 기존 참여하던 기관과 한국화학융합시험원, FITI 시험연구원 2개기관을 추가하여 총 18개 지역혁신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2024년 협의회 운영방안과 혁신기관간 효율적 기술·정보 교류 및 지역 R&D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세부사항으로는 △울산 R&D발전협의체(가칭) 운영방안 △울산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과학기술로드맵 수립 안내 △울산R&D 사업 전주기관리체계 안내 등이다.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이 날 논의된 사항을 향후 보다 구체화, 현실화하여 울산 과학기술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협의회 운영으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울산 과학기술 이슈페이퍼 및 정책연구보고서를 순차적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정출연 연구관리부서장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정책연구과제 등 논의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18일~19일 2일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및 고흥드론센터에서 ‘2024년도 제1차 정부출연 기관(이하 정출연) 연구관리부서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5개 정출연 연구관리부서장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18일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나로우주센터에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운영현황 공유 및 운영체계 정책연구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2024년도 제1차 출연연 연구관리부서장회의에서는 IRIS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전부처의 동시수행 제한과제와 제외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여 규정위반 사례를 막고있는 현황을 공유했다. 또 R&D과제에 대한 연구행정 역량 강화와 전문기관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일에는 고흥드론센터를 방문해 드론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3개 권역을 넘나드는 드론에 대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향후 드론·무인이동체 R&D 사업지원을 통해 드론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해 국내 드론이 세계 드론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드론산업 R&D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은 “국가 R&D사업 수행을 통해 효율적인 무인이동체 관리 및 통제에 대한 기술을 마련할 것이며 종합적인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 시장 창출과 전국 최대 드론 생태계 조성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kpenews.com/View.aspx?No=3207593>

지능형기계조선연구회 기획과제 자문 및 검토위원회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지능형기계조선연구회 기획과제에 대한 자문 및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능형기계조선연구회 수요조사 제안서 심의 및 검토를 통한 통합 필요과제 논의와 더불어 과제 R&D 기술성, 경제성 검토로 신규 중대형 기획가능 국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총 10개 과제 중, 5개 기획과제가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TF운영을 통해 과제기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번 선정된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전담기관 간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와 더불어 실질적인 과업 수행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10대 연구회 과제기획TF 본격 가동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10대 연구회(이차전지반도체, 방산, 첨단바이오연구회 등)를 통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5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기술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자문·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50개 기획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기획과제별로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7월부터 본격 가동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신산업 먹거리로 선정·신설되어 운영되는 연구회 등을 통한 국책사업 발굴이 시작 되는 만큼 올해 과학기술 위원회의 그 성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제1회 제주 과학기술혁신협의회 개최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7월, 제1회 제주 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2024년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지역 혁신기관 간 관련 내용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날 회의에는 제주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기술실용화본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참석한 각 기관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내부 과제와 중점과학기술 분야별 수행이 가능한 분야를 공유하였다. 또한, 제주지역은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이 총 4개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때 신규사업의 주제 선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미래 선도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 지역 맞춤형 R&D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제1호 ‘경남 IT·SW 스타기업’ 현판식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상남도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24일 ‘경남 IT·SW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한 도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2개사를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스타기업으로 지정하고, 제1호 IT·SW 스타기업인 (주)대형네트웍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과 진상락 도의원, 경남도 미래산업과 구병열 과장, (주)대형네트웍스 송종근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원장, 경남ICT협회 오양환 회장, 신화철강 정현숙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제1호 경남 스타기업 소개와 견학,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경남 IT·SW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부터 상품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 1년 차에 맞춤형 기술사업화 컨설팅 ▲2년 차 상용화 연구개발(R&D) 과제지원 ▲3년 차 연구개발 과제 고도화 및 상품화 등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9개 기업이 신청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기업으로 제1호 ‘(주)대형네트웍스’와 제2호 ‘주식회사 뎀스’가 선정됐다.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성장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는 경남의 우수한 IT·SW 스타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breaknews.com/1045958>

지역 과학기술육성 프로젝트 기획유치 지원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 공고 제20240627-1298

2024년 중앙 및 지역 R&D과제 기획·유치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4년 중앙 및 지역 R&D 과제 기획·유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적인 R&D 기획·발굴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대구지역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대구연구개발지원단 공고)

1 사업목적

- 다양한 R&D과제 유치를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기반 확립 및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 혁신적인 R&D발굴을 위한 과제 유망성 타당성을 통해 포괄적·보편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집중적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6개 내역(과제당 최대 800만원)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4. 10. 31(목)까지
- 지원대상 : 상한 공공예, 한계,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대구지역 내 중소기업은 본도시 대구광역시 내 본사가 있거나 미등록법인 기업
 - 중소기업은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도우미 기업(지자체, 지역기업 등)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주도 R&D 혁신을 위한 자체 R&D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로봇, ABB, 반도체 등 대구의 5대 미래신성장 산업을 주도할 R&D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4년 중앙 및 지역 R&D과제 기획유치 지원사업 신규과제를 모집하고 선정평가를 진행하였다. 최종 선정된 6개 과제는 R&D단계별로 첫걸음부터 확산과제까지 전담PM 매칭 및 기획연구회 운영예산을 최대 8백만원까지 지원받고 도출한 기획보고서는 전담기관 기획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차년도 중앙 및 지역 R&D 과제 연구개발계획서로 완성도를 높여 지역 주도 과학혁신역량 강화 및 R&D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양자정보기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세미나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는 지난 7월 22일 “양자정보기술 R&D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역 내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양자분야에 대한 지역의 육성·지원 제고와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한국연구재단 이순철 단장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양자정보기술의 기술현황과 미래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1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된 2차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평가원(IITP) 오윤제 PM을 초청하여 중앙정부의 양자기술 분야 정책방향 및 투자 전략 등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고 지역이 추진하고자 하는 양자정보통신 분야 육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함으로써 지역 양자로드맵의 정부 정책 정합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광주시는 전문가 세미나와 함께 한국광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주)우리로, SK텔레콤 등 지역 내 산학연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양자분야와 지역의 전통적 전략산업인 광산업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신규 R&D과제 기획을 통한 정책 기반의 신규사업 유치 확대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 및 산업 육성에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제2차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기획 사업」 과제 선정

서울연구개발지원단

2024년 제2차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기획 사업 공고

(국)서울테크노파크(원장)는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지역·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R&D정책 방향을 위한 수요를 있는 R&D사업을 기획·추진·지원·관리·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서울 지역·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R&D사업의 기획·추진·지원·관리·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제)서울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4년 제2차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기획 사업

2. 사업목적

- 서울시 지역·도시문제 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서울 지역의 수요 맞춤형 R&D사업 기획
- 서울시 및 중앙정부 R&D정책 등 추진 당위성에 부합하는 R&D(인프라 포함)사업 또는 과제 기획
- 단종 기업·폐업기업(SOC, KOSDAQ)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3. 대상 : 사업비지원대상 서울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본단 또는 지원기업(지원대상) 포함의 소규모 사업(특히)에 한하여 지원 가능

4. 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정부 또는 지역 R&D사업 등 중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 내용이 R&D사업/과제(인프라 포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서울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제2차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사업 기획 사업’을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R&D기획 과제 4개를 선정하였다. 금번 사업에 선정된 R&D과제의 산업 기술 분야는 모두 서울시 4대 핵심 산업 및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분야(로봇, 바이오, AI)로 서울시 및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2024년 사업부터는 선정된 기업에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하였다. 앞으로도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R&D기획 내실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고, 사업을 고도화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 지역 도시문제 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r.kr)-알림담당-기업지원공고

자체 R&D사업 성과조사 실시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6월, 지자체 자체 R&D사업 성과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최근 5년, 2018~2022년 수행한 지자체 자체 R&D사업을 대상으로, 4개의 성과 분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에 대해 진행되었다. 제출된 조사내용은 데이터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7월, 지자체 자체 R&D사업 성과의 최종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성과 결과와 더불어 향후 NTIS에서 제공하는 국가직접사업의 성과 데이터를 합산하여 지역 내에서 수행된 사업으로 발생된 성과를 최종 산출해낼 예정이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주지역에서 수행한 R&D사업 현황에 대해 매년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통계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과기원,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첫발을 떼다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 디지털 혁신 협의회’는 충북의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전략 도출과 기업 수요 발굴 등을 추진하는 자문기구로서 향후 ▲충북 디지털 혁신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충북 전략산업 디지털 전환 기획, ▲디지털 기업 유치 및 육성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 지능형반도체 등 충북 전략자산의 디지털 기반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육성, 인력양성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디지털 전환 노력들을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내에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혁신 특구(가칭)’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향후에는 분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으로 심도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충북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과기원은 디지털 대전환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모든 자원과 핵심역량을 결집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기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충북이 국가 디지털 혁신의 중심이 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m.cbiz.kr/news/articleView.html?idxno=27590>

‘충청권 ICT 콤플렉스’ 문 열어…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충청권 인공지능 및 SW교육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충청권 ICT콤플렉스’가 8월 9일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ICT콤플렉스는 정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 방안(’22. 8월) 및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전략(’23. 9월)의 일환으로 지역 디지털 교육거점 확대 및 교육과정 다변화를 통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 5개 권역에서 AI·블록체인·Data·N/W·IoT 등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함양한 실무형 AI·SW 인재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ICT콤플렉스는 ICT기술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및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개방형 인프라로서, SW개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간·장비 활용 지원, 청년창업 지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905㎡(273평) 규모로 청주 모충동에 신규 구축하였으며, 인근에 서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청주 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생들의 참여를 통한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보도자료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26684>



3. R&D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강원 에너지세라믹 및 첨단 반도체·센서 산업 육성 워크숍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반도체와 센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강원 에너지세라믹 및 반도체·센서 산업 육성 워크숍을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에너지 및 환경 세라믹 소재의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강원형 반도체 및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에너지 및 환경 세라믹 소재와 부품을 활용한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센서 산업에 적용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강원 세라믹 기업의 이차전지, 반도체, 모빌리티용 소재 및 부품 산업(차세대 센서, 전력반도체소재 제조공정 기술 등)으로 전환과 다각화를 위한 방안 논의하였으며, 세 번째로 강원 에너지 및 환경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성과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소개를 통한 지역 내 우수기업 유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지역 세라믹 기업의 이차전지, 반도체, 이모빌리티 산업 내 첨단 세라믹 산업 분야로 사업 전환·다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규모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강원 지역 세라믹 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원 세라믹 거점 지역으로 성장을 확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강원 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인 에너지 및 환경 세라믹 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미래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cerazine.net/news/view.php?idx=31089&mcode=m74r10r>

경남TP-KTL, 우주항공산업 전문가 양성 위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 2024년도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사업 •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프로그램

교육대상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내의 항공우주 및 관련 분야 재직자
신청기간 각 교육프로그램 진행 7일 전까지
신청방법 경남 지역혁신클러스터(www.gnccluster.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교육비용 무료 (별도 수료증 발급)
담당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보민 연구원 (055-791-3574)

교육명	강사	교육내용	교육일정	장소
항공기 인증제도 이해 및 실무	에어로류 김규환대표	- 항공기 인증제도 개론 - 항공기 설계인증(TC)제도/기준 및 절차 - 부품용 재직자 증명(PMA) 실무 - 항공산업 통관인증 표준 이해	8.22(목) ~ 23(금) (1회차) 7.30(목) (2회차) 7.23(목)	경남TP 우주항공 본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창원대학교 노영희교수	- 연구개발 사업 안내 -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 사업계획서 컨설팅	8.22(목) ~ 23(금) (1회차, 4차시)	추후공지
구조해석의 이해와 활용	ANH스프링 김우식이사	- 항공기 구조 설계 해석 기본 - 항공기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 및 실습	9.5(목) ~ 6(금) (1회차, 4차시)	추후공지
항공특수공정 인증교육 (NADCAP)	NADCAP 박준규발기사	NADCAP 개원 가이드라인 교육	9.26(목)	추후공지
지역혁신클러스터 R&D 연계 교육	해당분야 전문가	우주항공, 로봇공정자동화 등 기술세미나	(1회차) 7.8(목) (2회차) 9.24(목)	(1회차) 항공 소년포드 (2회차) 추후공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과 함께 7월부터 11월까지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비R&D 사업의 일환으로 ‘우주항공분야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내 산·학·연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주항공산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 진행한 ‘항공기 인증제도 이해 및 실무교육’ 과정과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구조해석의 이해와 활용, 항공특수공정(NADCAP) 인증교육 등이 있다. 또한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R&D사업(오픈랩)과 연계한 로봇공정자동화 관련 기술세미나 특강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클러스터 지역 내 재직자들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기술 특강을 통해 클러스터 지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우주항공기업의 재직자 수요 맞춤형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니 많은 기업 재직자들이 교육에 참여해 기술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TL 이의종 기계소재기술센터장은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우주항공산업 재직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인증 획득 능력과 항공 기술을 강화해 향후 신규 사업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TP와 KTL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newsg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857>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항공 MRO 정비 인력 양성 강화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지난 29일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내 대학에서 항공을 전공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항공서비스(KAEMS)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견학을 추진했다.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도내 항공정비 전문 인력 양성과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대학이 협업한 사례다. 경남TP와 한국항공서비스가 주관하고 경상남도, 사천시,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2021년 1기를 시작으로 2023년 5기까지의 교육 과정을 운영, 109명의 수료생 중 73명이 항공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4년 상반기에도 교육생으로 선발된 도내 대학 항공정비 관련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한국항공서비스에서 실습 교육과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TP는 도내 항공 관련 학과 우수 재학생들의 하반기 교육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5월 29일 1차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와 경남도립 남해대학 재학생 약 80여명이 한국항공서비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방문했으며 6월에는 경남도립 거창대학, 창신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TP는 2024년 하반기에도 항공 MRO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선발해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를 현장 실무형 정비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2024년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항공 MRO사업이 경남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531500068>

경남TP, 밀양시 연고산업 육성사업 관련 기술교육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지난 18일 나노융합 센터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밀양시가 지원하는 ‘2024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나노기술 융합 소재·부품 기술교육을 개최했다.

기술교육에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및 시장 다변화에 관심 있는 도내 소재·부품기업과 나노 전문 기업의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나노기술 융합 밀양 소재·부품기업 성장지원사업 최신 기술교육을 주제로 나노소재의 종류와 특성, 응용기술, 제품화 사례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나노기술 전문가들과 기존 산업과 나노기술의 융복합화 방안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남TP 임재하 나노융합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노 관련 기술교육과 세미나 개최할 예정”이라며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적으로 정제된 소재·부품 제조기업과 나노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기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2차 하반기 나노기술 교육은 오는 9월 나노융합 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경남TP 나노융합 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671785>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7월 3일(수) 경북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개발사업 10주년을 맞이하여 성과공유, 발전방향 설정, 산학연 교류를 위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북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지역 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28억원을 투입, 사업화 할 수 있는 원천·응용 기술 R&D기술 개발을 지원한 사업으로, 경북도는 센서융합, 무선충전, 초고강도금속, 3D머신비전, 스마트홈 등 경북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선도 품목뿐만 아니라, 최근 역점을 두어 육성하는 이차전지,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세포배양 등 다양한 품목들을 지원했다.

경북도는 R&D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우수 기업체들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기술혁신을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성장 정책 발굴 및 지역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2024년 5월 30일 2024년 제1차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회에서 지역혁신 정책 발굴을 위한 주요 현안과 올해 2024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연구회에서 논의한 지역혁신 정책발굴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생태계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및 실행체계이다. 지식의 창출·중개·촉진·활용이 유기적인 연계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초·원천·응용연구에 의해 지식이 창출되는 지식생태계와 가치 공동창출을 위해 기업에 활용되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논의한 현안들은 충분한 워킹그룹을 거쳐 이슈페이퍼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로운 현안 및 이슈 발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속적인 연구회 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현안을 발굴하고 전문성 높은 이슈페이퍼를 발간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역의 자생적인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추진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기업 기술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5월 부터 모집공고를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받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을 위한 전문위원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외에도 ‘기업 연구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민간 R&D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529-134호

2024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역기업의 R&D 역량강화 및 국가 R&D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4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9일
(제)대구테크노파크 발령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단순생산형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이해,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해, 전담부서) 설립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
- 전문연구사업자(이해, 연구사업자) 인증 확대를 통한 지역 R&D 수행구조 고도화 및 효율화 추진

□ 지원대상

- 전국 기업 대상 대구지역 내 연구소/전담부서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

※ 지역 외 기업인 외국기업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최대 내외

□ 지원기간 : 공고일 ~ 2024. 11. 30.

-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신청은 접수·지원하며 컨설팅 기간을 고려하여 '24. 10. 31까지 접수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국가첨단전략기술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선정 특별 간담회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병이 어떻게 힘을 모을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전시는 바이오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2032년까지 글로벌 임상3상 진입 10개,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등 기술혁신 및 신약 파이프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바이오특화단지는 국가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단축과 세금 감면, 정부 연구개발(R&D) 국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미 대전의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 알테오젠, 머크 등 총 51개 기업이 2037년까지 9조원 규모 시설과 R&D 투자를 확정하였다.

바이오벤처에 투자해 시민들이 부자가 되는 사례들을 만들어 성심당과 같이 지역민이 사랑하는 바이오벤처가 나오고, 시민들이 바이오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참고사이트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43>

중양-지역간 과학기술 연계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남권 간담회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선도연구개발지원단은 6월 25일(화)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중양-지역간 과학기술 연계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남권 간담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혁신 R&D 정책의 현장의견 청취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로, 중양(과기정통부, 특구진흥재단)-지역(부·울·경 지자체 및 연구개발지원단)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R&D 가이드 안내 및 애로사항 발굴, 연구개발지원단 기능 강화 방안, 지역 R&D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이 주도하는 R&D 연구환경 조성 및 자생적 지역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중양에서는 향후 지역 주도 R&D 정책 추진을 위한 중양 지원·협력 방안을 찾고, 중양-지역 간 정책공유·협력 수시지원을 통해 지역 R&D 추진 기반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동남권 광역연계형 협력협의체 착수회의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선도연구개발지원단은 7월 23일(화) 부산에서 부·울·경 산학연 광역연계형 협의체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동남권 광역연계형 협력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 착수회의에서는 동남권 주요 과학·산업 기술분야(친환경 선박) 관련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24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계획 및 협의체 협력과제(사업발굴, 공동 조사·분석)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력과제로 사업발굴 분과는 ‘지역 내외 연계사업 발굴’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며, 착수회의에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부울경 연계형 제안사업을 발표하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다. 조사·분석 분과는 사업발굴 제안분야와 관련된 산업/정책 동향, 특허, 논문 등의 조사·분석을 추진하여 분과 간의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동남권 광역연계형 협력협의체는 지역별 여건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울·경 상생을 위한 연계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과제)을 추진함으로써, 부·울·경 연지단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활성화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연지단에서는 지난 5일 ‘기술강소기업 투자활성화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통해 주력산업과 미래신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술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효대 경제부시장,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주)뉴라이즈, 디플라(주), (주)마커스, (주)아이엠디, 에스지(SG)산전(주), 엠디소프트, (주)엠유티론, (주)유메드, 은연테크, (주)카비랩, 케이엠오테크 등 올해 울산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기업당 최소 6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술강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울산시는 기술강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으로 기업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623>

세종테크노파크, ‘퀀텀시티 세종’ 도약 위한 ‘퀀텀코리아 2024’ 참가

세종연구개발지원단



* ‘퀀텀코리아 2024’ 참가 행사 모습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재)세종테크노파크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4’에 참가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4는 2020년부터 개최해오던 양자정보주간(Quantum Week)을 새롭게 브랜드화 하고, 양자 문화 및 기술사업 확산 가속화를 위해 국내외의 대표 석학과 정부부처 관계자, 관련 대표기업들이 함께 양자 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행사이다.

세종시는 2023년 5+1 세종 미래전략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인 양자산업 육성을 통해 세종 산업의 퀀텀점프를 견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종TP는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인 양자산업 육성의 다양한 활동과 산업 육성방안 홍보, 국내외 기관·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양자 글로벌리더 대한민국, 퀀텀시티 세종이 이끌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다.

전시 내용은 △세종시의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교류 활동(’23.3월) △제24회 세계지식포럼 세종 양자 세션개최(’23.9월) △세종시-QuEra-KAIST 업무협약(’23.9월)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개편(’23.10월) △양자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23.12월) △퀀텀 겨울 특강(’24.1월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볼프강 케털리 교수) △세종 양자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수립(’24.3~8월),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투자유치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퀀텀코리아 2024 전시에는 세종TP 등 국내 출연연, 주요 대학,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메가존클라우드, SDT 등 중견·중소기업이 참가한다. 아울러 미국의 큐에라, 아이비엠, 아이온큐, 프랑스의 파스칼, 스위스 취리히 인스트루먼트 등 11개국 63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특히, 아마존, 메가존클라우드 등 많은 기업들이 전시 부스 방문을 통해 세종시 양자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외에도 퀀텀코리아 2024에서는 한-덴마크, 한-영 양자과학 기술포럼, 글로벌 네트워킹 리셉션,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 출범식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연다.

세종TP 양현봉 원장은 “이번 퀀텀코리아 2024에 세종TP의 참가로 세종시의 양자산업 육성 의지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유망 양자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퀀텀시티 세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양자산업 영위 기업의 세종시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41>

보도자료 세종테크노파크 - 보도자료

전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교육·정부출연연 전문가 매칭 데이’ 개최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는 11일 전남 중소기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남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강화 교육 및 정출연 전문가 매칭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지역 중소기업 35개와 정부 출연연 4개 기관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전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애로기술 지원을 위해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교육과 정출연 연구자와 일대일 기술 매칭을 진행했다. 정부출연연 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참여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 R&D 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사업’, ‘전남 중소기업 R&D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사업’, ‘정부출연연 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오익현 원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정출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유도하고, 전남 기업들의 국가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etnews.com/20240712000171>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농공단지 지원사업 통합워크숍 성료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18일 ‘2024년도 전남 농공단지 지원사업’ 선정 관련 원활한 사업수행과 소통을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19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기업맞춤형 특화+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공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농공단지 기업 51개사, 공동연구기관 7개 기관 69명이 참여했다.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기업맞춤형 특화+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워크숍에는 유관기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담당자 간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 농공단지 입주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실제 기업분들이 겪고있는 애로 사항을 찾아내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71914182455779>

전북과학기술혁신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주도 과학기술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과학기술혁신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산업·기술·경제·정책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사업 기획 등 과학기술 기획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간 교류확대를 위해 추진되었다.

초청강연으로는 1)한국 산업기술혁신의 이슈와 과제, 2)과학기술 거버넌스 전후좌우 그리고 쉐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금번 개최된 과학기술혁신포럼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와 현황 공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할 방향에 대한 재정립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과업 및 신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미래선점 기반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제25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

- (부제) 충남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 -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도는 7월 19일, 충청남도 주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한국자동차연구원 주최로 ‘충남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에 대한 온·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오미혜 강소특구캠퍼스장의 ‘모빌리티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간 융합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가톨릭대학교 고태훈 교수의 ‘디지털 헬스의 모빌리티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 (주)에이치디전성 장동진 대표의 ‘의료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기회와 도전’, 총 3건의 발제가 있었다.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최창규 정책기획부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운석 도 미래산업정책팀장,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 강대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혁신기업협력센터장, 이한성 옐로우나이프 대표, 고경선 카카오 모빌리티 부장 등이 참석해 향후 도의 미래 신산업으로 가능성이 높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발굴·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재 자동차 내 실내 전동안마 시트 기술부터 차량 내 센서를 통한 생체 위험 감지, 위험상황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모드 전환 등 모빌리티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의료 정보 활용의 한계 등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새로운 산업 융합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나가, 충남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기획 등의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https://www.youtube.com/live/hQZ3ioAqZQU?si=6QgCqXP5LTxp2eP_

보도자료 <https://www.daej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319>



충청권 4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공동 연구 협력 머리 맞댄다

- 충청권 4개 시·도 (충북, 세종, 충남, 대전) 연구개발지원단 협력 과제 발굴 논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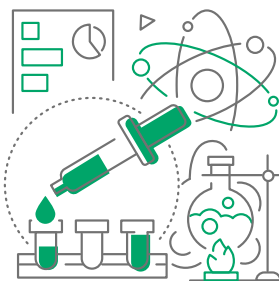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청권 협의체는 분기별 개최하는 회의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부흥을 위한 초광역 협력시대가 도래하면서 충청권 간 서로 협력하여 지역 전반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협의체는 충북을 중심으로 충청권의 지역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각 지역의 활용 가능 인프라 및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인프라 연계 상생발전 모델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도자료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94989>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최근 경기도 산업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Policy Focus” 4건과 “GBSA Review” 1건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들은 경기도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간된 “Policy Focus” 보고서에는 ‘AI 선도 국가를 위한 경기도 역할과 정책 과제’,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정책 동향과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시사점’, ‘경기 북부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경기도 산업기술 인력 현황과 시사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들은 각각 경기도 AI 산업, 경기도 그린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성장 방안과 산업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GBSA Review”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연설을 통해 본 글로벌 정세와 시사점’을 주제로 다루며, 국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board/industrial_trend.do

GBSA Daily Report, 월간 헤드라인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최근 GBSA Daily Report와 월간 헤드라인을 배포했다. GBSA Daily Report는 과학기술, 제조혁신, 지역경제, 벤처스타트업, 반도체, 인공지능/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등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9가지 카테고리별 주요 뉴스를 매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지역 및 산업의 트렌드와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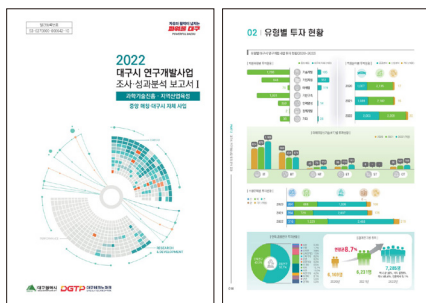
월간 헤드라인은 한 달 동안 GBSA Daily Report에서 다뤘던 주요 이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재정리한 후, 월 1회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한눈에 경기도의 경제와 산업의 핵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발간된 자료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board/daily_trend.do
http://pf.kakao.com/_xcxendYxj/friend

2022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I) 발간 및 배포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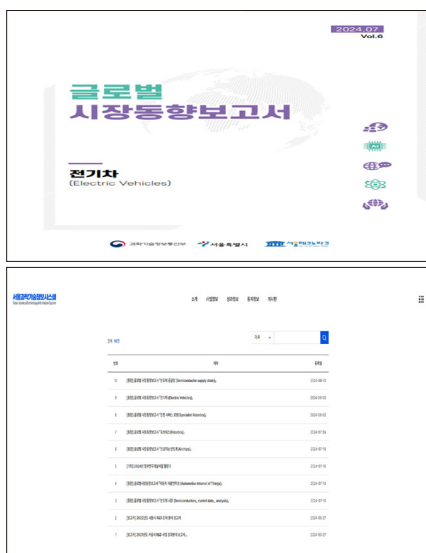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4월 「2022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보고서(I)」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의 총 투자액은 4,232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증가하여 매년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22년 대구시 연구개발활동(R&D) 투자액은 2,474 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3.7% 증가하였으며,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총투자액 중 연구개발활동투자액(R&D)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앙 매칭 사업의 R&D 투자액은 2,349억원으로 '21년 대비 44.2% 증가, 대구시 자체 사업은 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3% 증가하였다. 본 보고서는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S)를 통해 과제정보 22개 항목, 성과정보 26개 항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개발활동(R&D) 분야 및 유형별 투자, 유형별 성과에 대한 기술통계 및 2차원 교차분석, 수혜기업의 경영성과분석이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 원문 및 통계표는 대구과학기술정보 서비스(DTIS)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본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육성 분야 전체사업의 투자 및 성과를 분석하고 증거 기반 사업추진과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참고사이트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dtis.re.kr)- 발간자료-조사분석보고서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 7종 발간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최신 시장 동향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수요자 및 공급자에게 제공 확산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STIS)에 게시하였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2대 국가전략기술 50대 세부 중점기술 관련 글로벌 시장 동향으로,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서울시 전략산업 및 서울 지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보고서 작성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보고서를 연말까지 작성 게시하고, 작성 완료된 보고서를 2권으로 나누어 책자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작성 완료된 7개 세부 중점기술에 대한 글로벌 시장 동향 보고서는 STIS의 '발간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나머지 세부 중점기술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게시할 예정이니 필요 시 STIS 내 게시판의 발간자료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및 기술 발전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및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 최신 정보와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참고사이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https://www.stis.or.kr/home>)-게시판-발간자료



04

R&D 성공사례

전북특별자치도 R&D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우수사례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 R&D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우수사례

전북연구개발지원단

◆ 지역주도 과학기술 기반 마련을 위한 시작

- (R&D 지원체계 구축 위한 발판 마련) 지속성장 가능한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적극적 지원으로 지역주도 과학기술 발판 마련함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지방과학기술 시행계획 기준, 최근 3년간 지자체 자체 연구비는 매년 약 1,000억원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4,210억원 대비 2021년 6,058억원으로 지자체 연구비는 약 44% 증가함(※지자체는 도·시·군비 포함)
 - 지자체 자체 사업의 R&D·비R&D 사업 구성비는 최근 3년 간 3:7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부터 R&D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R&D 정책방향 수립) 이와 같은 R&D 생태계의 성장 성숙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와 더불어 R&D 컨트롤타워인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을 주축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 중임
 -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09년 선정되어 ①단계('09~'17) 체계구축 및 성장기, ②단계('18~'26) 운영 혁신 및 성숙 발전기, ③단계('27) 위상 강화 및 진화 발전기로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운영 중

<전북특별자치도 R&D 중장기 정책방향>

<1>단계 체계 구축 및 성장기			<2>단계 운영 혁신 및 성숙 발전기			<3>단계 위상 강화 및 진화 발전기
'09~'11	'12~'14	'15~'17	'18~'20	'21~'23	'24~'26	'27년 이후
태동 및 운영체계 구축	체계 강화 및 성과발현	기능 정립 및 성과제고	전주기 R&D 관리체계 확립	과학기술 및 R&D 혁신체계역량 강화	견고한 위상 정립	미래 신경제사회 발전 선도

- (전북자치도 R&D 지원사업 추진) 전북자치도 R&D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추어 2011년부터 순도비를 편성하여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등 R&D와 비R&D 지원사업을 시행함
 - R&D 체계 강화 및 기능 정립 방향에 따라 지역 R&D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및 지방과학기술정책에 부합하는 R&D 사업을 지속 추진 중임

◆ 전북자치도 R&D 사업 추진 체계

- 전북자치도 R&D사업 추진 총괄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 전담기관으로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

제15조(전담기관)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전북과학기술진흥단에서는 R&D 정책수립, R&D 운영요령 개선, 사업계획 수립, R&D 기업지원 등 R&D 전주기 체계 지원 추진



<전북과학기술진흥단 R&D사업 운영 체계>

◆ 전북자치도 R&D 사업 추진분야

- (지원분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6대 혁신성장산업과 전북형 뉴딜중 안전망을 제외한 7대 분야를 지원분야로 설정

* 전북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2020~2024년) 수립(2019. 8월)

-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원천인 과학기술의 초격차를 위해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에 대한 지원강화
- 기술·산업간 유기적 연계·융합 촉진 위해 융복합 기술 지원 강화

<도비 R&D 지원분야>

구분	지원 분야		
혁신 성장 산업	•에너지신산업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ESS 등	
	•미래 수송·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농건설기계·뿌리 등	
	•첨단융복합소재	•탄소, 섬유, 방사선, 전자소재·부품 등	
	•라이프케어	•제약, 뷰티, 의료기기 등	
	•스마트 농생명	•종자·미생물, 식품, 농자재·시스템, 동물사료·의약품 등	
	•정보통신융합	•콘텐츠, ICT·SW 등	
국가 전략 기술	혁신선도	미래도전	필수기반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양자 •첨단로봇·제조
전북형 뉴딜	•D.N.A 융합 전북경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스마트 농생명 밸리 2.0		•ICT융합 스마트팜, 스마트농생명 플랫폼 등
	•디지털 문화 관광 실감형 콘텐츠		•홀로그램, 문화유산, 스마트관광 실감형 콘텐츠 등
	•안전하고 더 편리한 전북도민의 삶터		•스마트시티, 드론기반 지역정보 플랫폼 등
	•신재생에너지 1번지 에너지 전환 확대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그린 모빌리티 산업경제 전환		•수소상용차, 전기차, 스마트팩토리
	•천년산하 생태백신 그린바이오		•생태백신, 그린인프라

◆ 지원사업을 통한 우수사례

< 우수사례 1 >

- 기업명 : (주)에드아임(대표 : 이희관, 전주)
- 과제명 : 시간가동율 향상을 위한 CNC장비의 스피들 상태진단용 스마트IoT모듈 기술개발



- 성과
 - 스마트제조 솔루션을 위해 기존 솔루션이 장비의 예지 보전에 편중되어 있고 실시간 공정 제어를 위한 솔루션이 부재한 상황에서 엣지디바이스와 데이터 처리 SW 도입을 통해 실시간 진단이 가능한 솔루션 개발
 - (매 출) 솔루션 개발 완료에 따른 직접매출 1.78억원 발생
'21년 67백만원 → '22년 975백만원 (1,455% 상승)
 - (특 허) 'CNC공작기계 스피들모터의 진동주파수와 가공부하의 비접촉식 검출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진동주파수와 가공부하의 비접촉식 검출방법' 1건 출원
 - (고 용) 장비 상태진단 솔루션 개발 및 수요처 대응을 위한 연구인력 4명 채용
 - (기 타) 추가 솔루션 개발을 위한 중앙 R&D(과기부, 중기부) 2건 수주
'An Adaptive Control for NC Machining Using Reference Control Load Curves'
LNME 논문 게재 1건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 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	강원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md.gsipa.or.kr
경기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gtis.gbsa.or.kr
경남	경남 연구개발 조사·분석 정보제공 시스템	gctis.gntp.or.kr
광주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gjtis.gjstec.or.kr
대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re.kr
대전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daon.distep.re.kr
부산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btis.bistep.re.kr
서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준비중)
세종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울산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md.utp.or.kr
인천	인천R&D정보시스템	irds.itp.or.kr
제주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전남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jntis.jnsp.re.kr
전북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md.jbtp.or.kr
충남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cnstis.net
충북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esearchweb.cbist.or.kr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033.650.3320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35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554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0852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45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8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479.2217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33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609.0411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749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76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260.9322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042.865.0511	충남	충남연구원	041.540.3807
부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051.795.5023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210.0866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944.6072			



2024 Vol. 25

ISSUE& FOCUS